

□ 연수생 수기

◦ 강○림 연수생 연수 및 취업 수기

일본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로서

재직회사 : ブライザ株式会社

프로젝트 파견업체 : TOYOTA(아이치현 도요타시)

취업일자 : 2018. 06. 18(月)

◦ 전지평가 업무에 설계가 필요해?

저는 현재 도요타 자동차의 EHV전지설계 및 평가부서에서 전지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지평가업무팀에 배속이 된 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연수에서 배운 설계랑 다른 업무인 것 같은데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시작해 보니 7개월간 설계를 배우며 쌓았던 기계관련 기초 지식 및 자동차 관련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전지평가라는 업무를 잘 해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재되는 전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전지의 관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차량 및 기계적인 부분도 고려하며 전지를 바라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및 기계 관련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연수기간동안 배웠던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뼈와 근육이 되어 본인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히라가나도 겨우 외우던 내가

제가 연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겨우겨우 외우던 일본어 초심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연수기간동안 배운 일본어만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 믿기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학생 한명 한명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일본어의 대한 흥미를 유지하게 해준 동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학원 및 학습 자료는 시험에 치중되어 있어 바로 실생활에 활용이 어렵습니다만, 연수중 배운 일본어는 학생들의 일본생활도 고려하여 짜여진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도 비교적 금방 적응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전혀 말할 수 없었던 외국어를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교수님들의 전적인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수생의 신분을 벗어나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일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고 가장 많이 아쉬웠던 것이 교수님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배워올 걸 .. 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연수생들이 일본에 가서 일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일본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의 배 이상의 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또한 금방 꺾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주변의 사람들(일본인)에게 일본어로 본인의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원하는

답을 듣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교수님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배워서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즐거움을 참으면 일본에 가서는 그 누구보다 여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본어를 잘하는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0순위로 꼽히는 것은 당연 일본어 입니다. 물론 시험 성적 및 자격증이 일본어 능력을 증명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본어로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하며 일본인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성적을 갖고 있더라도 일본취업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취업에서 저는 일본어 성적도 성적이지만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정형화 되어 있어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첫 인사만 하여도 그 외국인이 어느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 하듯이, 일본 면접관들도 지원자가 첫 인사를 하는 것으로만 일본어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한 대답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외워야 하며 (본인이 쓰지 않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준비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실제로 이야기 하듯이 몇번이고 반복하여 입밖으로 꺼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준비한 답변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면 어떠한 돌발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두려움 = 1보 후퇴, 뻔뻔함 = 1보 전진**

일본에서 태어나고 살아오지 않은 이상 일본인처럼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국인이고,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많은 실수를 해가면서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말하면 어떡하지? 재가 비웃으면 어떡하지? 발음이 이상했나? 같은 수많은 두려움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두려움 뒤로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멈춰 있게되고, 심각한 경우 일본어 자체가 무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조금의 뻔뻔함입니다. 알고 있는 단어로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한문장, 한문장 한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피하지 말고 조금은 뻔뻔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일본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일본어가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틀린다고 때리지 않아요.

○ **일본에서 얻고자 하는 것**

일본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는 한명의 엔지니어로서 제가 한 업무결과에 대해서 일본인들에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과 쌓이는 커리어와 함께 발생할 업무적 성과. 이 두 가지가 제가 일본에서 얻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목표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바와 같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 노력한 결과가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차기 연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수기관 : (주)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과 정 명 : 3D자동차부품기계설계 (2기)
연수기간 : 2017. 11. 06 ~ 2018. 05. 29

성 명 : 강 ○ 림 (女)
연락처 : +81) (0)70-3001-0004
e-mail : surim0000@naver.com